

K-바이오, 뇌질환·항암 기술로 글로벌 빅파마 '정조준'

에이비엘바이오 GSK와 4조 계약 유한양행·한독 이중항체 등 협력 알테오젠 제형전환 2조 수출 성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잇따라 수출해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을 강화하며 'K바이오'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5일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뇌혈관장벽 투과 기술 '그랩바디-B'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식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조1104억원 수준으로, 우선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 약 739억원, 단기 마일스톤 약 741억원 등 총 1480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기타 마일스톤은 임상, 허가, 상업화 등의 성공에 따라 단계별 수령하며 그 규모는 최대 3조9623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GSK는 에이비엘바이오의 그랩바디-B를 도입해 복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GSK는 소형 간섭 RNA(si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항체 등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랩바디-B는 약물의 혈액뇌관문(BBB)을 투과율을 높여 해당 물질의



치료 효능을 증가시킨다. 즉, 그랩바디-B 기반 약물은 뇌 내세포 표면에 발현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IGF1R)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기전을 갖춰 혈액뇌관문(BBB)을 통과한다.

이 경우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해 중추신경계(CNS) 질환의 발병 원인을 정조준하는 치료가 가능해진다. 혈액뇌관문(BBB)은 유해한 물질과 인자가 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이지만,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작용기전에서는 핵심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그랩바디-B'를 상업화해 글로벌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자체 연구개발로 이중 항체 플랫폼을 확보해 단일 항암제,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대표 제약 회사

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유한양행과는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로 ABL104, ABL105 등 2종을 공동연구하고 있다. ABL105는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HER2 발현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다. ABL104의 경우,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한양행이 임상1/2상 시험계획(IN D)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승인받은 연구는 해당 약물을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임상시험이다.

한독과는 최근 담도암 2차 치료제 'ABL001(토베시미그)' 연구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토베시미그는 표적항암제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및 전이성 형태로 예후가 좋지 않은 담도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는다. 토베시미그는 미국 식품의약품(FDA)

이 개발사의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에이비엘바이오의 계약은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은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달에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자회사 메드이문 LLC 및 영국 자회사 메드이문 Ltd와 피하주사제형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약 1조9640억원(13억5000만 달러) 규모다.

알테오젠은 다품목 항암 치료제의 피하주사제형 개발에 대한 독점적인 글로벌 개발 권리를 아스트라제네카에 부여했고, 계약금을 포함해 ALT-B4 개발 및 규제, 판매 관련 마일스톤 등을 확보하게 됐다. ALT-B4는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을 구현한 물질이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신약개발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넘어선 첨단 기술력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오래된 난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최근 연구를 상업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에스쁘아 "모공 잡고 톤업까지"

'비벨벳 파운데이션'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브랜드 에스쁘아가 CJ올리브영에서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신제품 '비벨벳 파운데이션'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제형으로 설계됐다. 제형뿐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모공의 밝기, 붉은기, 노란기를 보정하는 기술력을 적용해 차별화했다. 모공을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피부 전체 색상이 균일하게 밝아지는 효과를 갖췄다.

이번 신제품은 총 10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카이스트와 협업해 개발한 색조 시스템 'AP 컬러 그리드'를 활용해 어떤 피부 톤이든 맞는 색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3N 두부' 색상은 고명도의 색감을 구현해 얼굴 입체감 표현에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파우더 성분 비율을 높여 메이크업 고정력을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외부 자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메이크업을 72시간 지속해 준다. 또 식물성 PDRN, 펩타이드, 저분자 히알루론산 등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해 모침이나 들뜸을 최소화한다.

/이청하 기자



에스쁘아 '비벨벳 파운데이션'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스테키마', 美 보험시장 진입 가속

美 3대 PBM과 선호약 계약 공·사보험 처방집 등재 성과 직판 앞세워 처방 확대 기대



셀트리온 '스테키마'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한 곳의 처방집에 등재 결정이 이뤄져 환급 가능한 시장을 조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출시 약 한 달 만에 거둔 성과다. 회사측은 미국 직판판매(직판)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스테키마는 해당 PBM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해당 PBM에서 관할하는 공사보험은 전체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22%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을 판매하며 쌓은 협상 역량을 바탕으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면서 등재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미국 제약 시장에서 3대 PBM은 전체 보험 시장의 약 80% 규모를 차지한다. 통상, 대형 PBM과 제약사가 협상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처방집에 의약품이 등재될 수 없다. 이 경우 환자는 고가의 치료제를 비용 환급 없이 제품 가격 그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 출시 한 달 만에

대형 PBM과의 등재 성과를 달성하며 영업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스테키마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직판하고 있으며, 같은 자가면역질환 제품인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를 판매하며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 계약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기존 제품을 판매하며 미국 내 주요 자가면역질환 의료진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온 만큼 처방집 등재가 완료된 스테키마 처방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연구 활발

美 신경과학회 학술대회서 성과 발표

SK바이오팜은 오는 9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제 77회 미국신경과학회(AAN) 연례학술대회'에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감소 및 뇌전증 관리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임상 결과와 실사용데이터를 포함한다. 회사는 반응성 신경 자극 데이터를 객관적 지표로

활용해 세노바메이트 및 기타 부가 항경련제의 효과를 평가했다.

해당 임상은 국소 발작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다기관 후향적 관찰 연구다.

그 결과, 뇌전증과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 최종 관찰 시점(12주)에서 뇌전증과 발생 빈도는 평균 2.5회/29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스라인(8주) 평균 15.7회/28일 대비 평균 약 84% 감소한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짜 먹는 진통제 '파인큐나프록센' 공개

대원제약 편두통·치통에 효과

대원제약은 국내 유일의 짜 먹는 나프록센 진통제 '파인큐나프록센현탁액'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파인큐나프록센현탁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나프록센 250mg이 처방됐다. 나프록센은 편두통, 치통, 근육통 등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다. 해당 성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중 진통 및 항염 효과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장점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나프록센 성분 의약품은 정제

나 연질 캡슐 형태로 유통됐는데, 대원제약은 이번 막대형 제품 출시로 소비자가 선택폭과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막대형 의약품은 물 없이 복용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한 것이 강점이다.

또 파인큐나프록센현탁액은 '파인큐' 제품군의 세 번째 짜 먹는 진통제다. 대원제약은 앞서 해열진통제 파인큐아세트펜(아세트아미노펜 640mg), 해열·소염 진통제 파인큐이부펜(이부프로펜 400mg) 등 진통제 제품군을 구축해 왔다.

/이청하 기자

제너시스BBQ

벚꽃 필 때도 '치킨'

빌리지 송리단길점 핫플 등극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BBQ 빌리지 송리단길점이 본격적인 벚꽃 시즌을 맞아 기존의 치킨 매장과 차별화된 메뉴 및 특색 있는 운영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송파구에 위치한 송리단길에 문을 연 BBQ 빌리지 송리단길점은 치킨 외에도 브런치, 베이커리, 커피, 화덕피자 등 다양한 메뉴를 도입한 크로스오버 매장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오픈 후에도 브로드웨이를 연상시키는 간판 디자인과 대리석을 활용한 고급스럽고 인스타그램(Instagram) + able,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인테리어로 젊은 세대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송리단길점은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로 유명한 석촌호수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벚꽃 시즌이 되면 매장 대기 번호가 100번이 넘어갈 정도로 상춘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신원식 기자 tree6834@